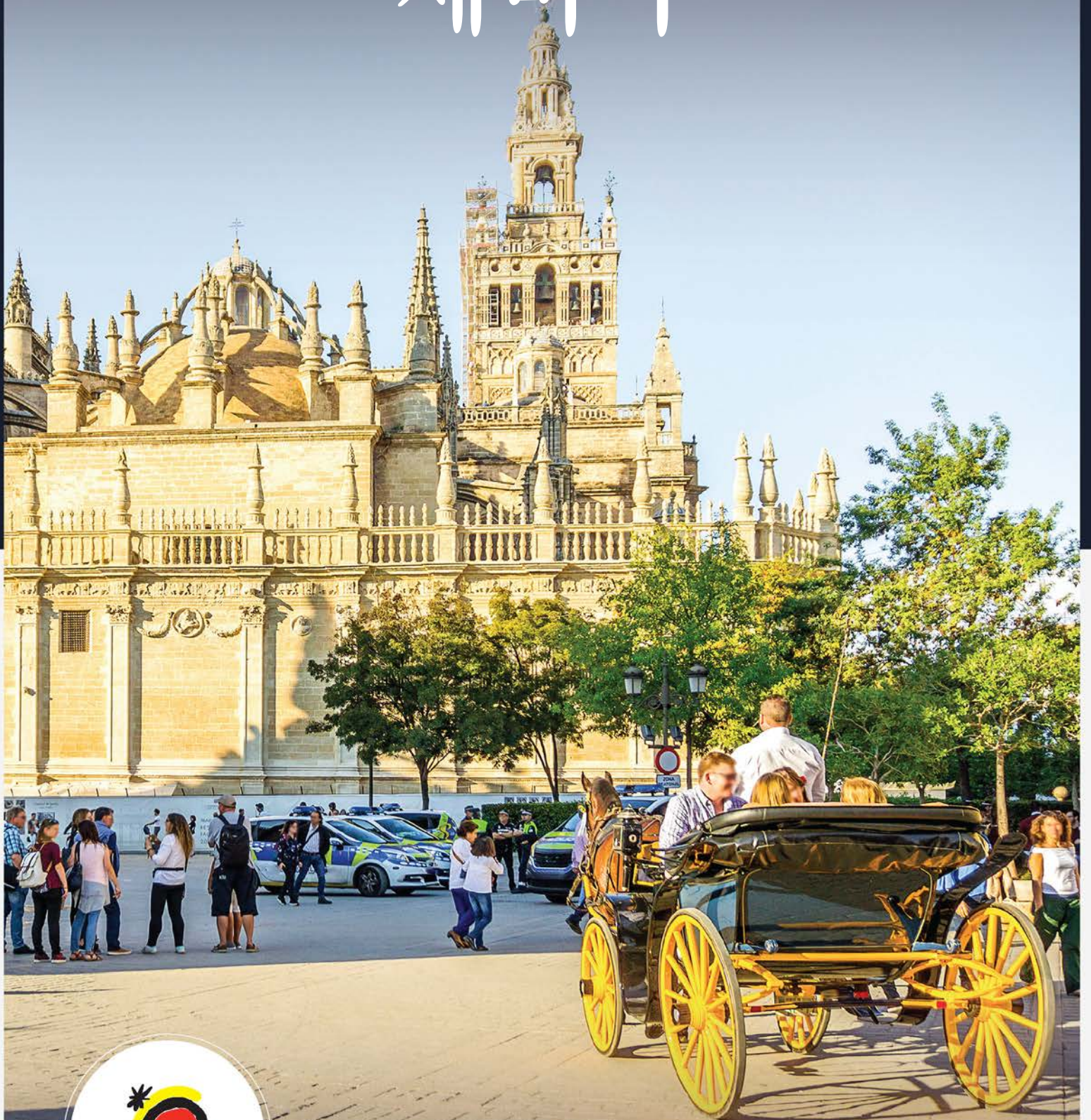


세비아



www.spain.info



▲ 스페인 광장

Ministerio de Industria, Comercio y Turismo
Publicado por: © Turespaña

Creado por: Lionbridge

NIPO: 11518010X

EJEMPLAR GRATUITO

El contenido de este folleto se ha creado con el máximo cuidado. No obstante, si observa algún error, ayúdenos a mejorar enviando un e-mail a brochures@tourspain.es

Portada: Catedral de Santa María de la Sede.

Foto: Jacek Sopotnicki/123rf.com

Contraportada: Foto: Lucas Viani/123rf.com

목 차

개 요	3
세비야 도시 구석구석	5
문 화	12
세비야 느껴보기	16
사계절의 세비야	18
어린이들을 위한 세비야	20
신비의 도시	20
세비야의 밤	24
도시의 거리와 산책	26
세비야 근교 방문지역	27
찾아오시는 길	29
세비야 안에서 이동하기	30

머리말

세비아는 방문하신 당신에게 독특한 골목, 미소, 석양 등과 같은 특별함을 선사합니다.

천 개의 우표 속 풍경을 가진 안달루시아 수도로 초대된 당신은 3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혼합된 문화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세비아의 거리에는 트리아나(Triana)와 라 마카레나(La Macarena)와 같이 흥미진진한 기념비적 유산이 많다. 세비아 유대인 거리(la judería sevillana)를 방문하거나, 산타 크루즈 지역(barrio de Santa Cruz)의 비밀을 알아보고, 무리요(Murillo) 화가의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 그 어떠한 작은 공간도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이다.

박물관, 예술 센터, 테마파크는 세비아가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여가 활동 중 하나이다. 문화 활동은 무수히 많다. 유명한 국·내외의 음악 그룹은 라 까르뚜하(La Cartuja)와 엘 팔렌께(el Palenque)의 콘서트홀을 통해 스페인 음악계를 이끌고 있다. 연극과 영화의 할인 조건 또한 좋다. 여행 계획을 세우고 도시 분위기에 집중해 보자. 세비아인들의 환대와 개방적인 성격에 매료될 것이다.

다양하고 맛있는 타파스를 맛볼 수 있는 전통 있는 바에서 진정한 세비아 도시의 묘미를 느껴보자. 세비아의 열정이 거리 곳곳에 배어 있다. 세비아 대성당, 히랄다 탑(La Giralda)과 같은 기념비적 명소가 보이는 테라스에서 도시의 활기찬 분위기를 즐겨 보자.



▲ 히랄다 탑

세비아의 수도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바로 오랜 역사를 지닌 **전통 축제**이다. **부활절 축제(Semana Santa)**와 **4월 축제(Feria de Abril)**에 같이 참여하여 세비아 사람들의 헌신과 열정을 같이 느껴 보자.

도시의 분주함을 경험했다면, 자연 환경에서의 고요함과 신선함을 느껴 보는 건 어떨까.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유산 및 생물권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도냐나 국립공원(parque nacional de Doñana)**의 습지, 모래 언덕과 보호 지역은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다.

시에라 노르떼 자연 공원(parque natural de la Sierra Norte)도 하이킹을 즐기기에 아주 좋은 또 하나의 보물 지역이다.

가게의 쇼윈도, 쇼핑센터에서 시장의 수제 제품인 도자기, 부채, 골동품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안달루시아 수도의 독특한 아름다움과 빛은 방문하는 모든 이들을 매혹시킨다. 세비아는 색채, 삶 그리고 마법이다.

▼ 도냐나 국립공원



세비야

도시 구석구석

세비야는 매혹적인 도시로 유명하다. 중심부에 있는 산타 크루즈(Santa Cruz)에는 거리, 궁전 및 꽃이 만발한 빠띠오가 있다. 구아달끼비르 강 건너편에는 해양과 플라멩코의 예술을 볼 수 있는 트리아나(Triana)가 있고, 역사가 넘치는 유명한 라 마까레나(La Macarena)가 있다.



▲ 세비야의 레알 알까사르

역사적 중심지

세비야의 역사적 중심지에는 특별한 매력이 있다. 거리에는 고유한 기념비적 유산과 기쁨을 주는 풍경들이 기다리고 있다. 성당을 방문하여 인상적인 무데하,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및 신고전주의 예술적 양식에 감탄해 보자. 성당 내부로 들어가면 크리스토팔 콜럼버스의 유적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수 세기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성당의 종탑인 히랄다(La Giralda)에 올라가 도시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다.

히랄다 근처에는 왕과 고위 관료가 살던 레알 알까사르(Real Alcázar)가 있다. 내부 정원에서 오렌지 나무, 아자수 및 분수를 보며 산책하는 것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것이다. 티켓 예약 정보는 웹 www.alcazarsevilla.org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 스페인 광장

꼭 방문해보아야 할 장소로는 마리아 루이사 공원 (parque de María Luisa)에 위치한 건축물인 스페인 광장(plaza de España)이다. 이 독특한 건축 양식은 “로렌스 오브 아라비아” 또는 “스타워즈 : 에피소드 II 클론의 공격”과 같은 유명한 영화의 촬영 세트장으로 선택되기도 했다. 이 광장은 1929년의 이베로 아메리칸 전시회 본관에 설계되었다. 예전 자신들의 영토였던 미대륙에 대한 포용을 상징하고, 구아달끼비르 강을 미국으로 이르는 길이라 여겼던 반 타원형 모양의 광장이 바로 이 스페인 광장이다.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아르치보 데 인디아스(Archivo de Indias)는 식민지 시대의 수천 가지의 문서와 지도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안달루시아의 벨라떼레스계 건축물의 전시회를 보려면 시청을 방문하자. 교회와 안달루시아 수도의 최고의 장소 중 하나인 살바도르 광장(plaza del Salvador)을 산책하며 타파스도 즐겨보자.

테라스와 바에서 시원한 맥주를 즐기고, 고유한 전통 세비야 미식을 경험해 보면 세비야만의 특별한 빛과 활기를 느낄 수 있다.

세비야 여행에서 역사와 전설을 숨 쉬게 하는 많은 궁전들이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을 신비로운 추억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도시의 주요 미술관 중 하나인 아르소비스팔 궁전(palacio Arzobispal)에는 무리요 및 수르바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한 달에 두 번 토요일만 관람이 가능하고 방문객 수가 많기 때문에 미리 예약하도록 하자.

라스 두에냐스의 궁전(palacio de Las Dueñas)은 귀족들이 살던 곳이자 시인 안토니오 마차도가 탄생한 곳이다. 이곳의 아름다운 정원과 유명한 예술 작품 컬렉션은 많은 이들을 감탄하게 한다. 산 텔모 궁전(palacio de San Telmo)은 세비아 바로크 양식의 가장 아름다운 장소 중 하나로, 또한 번 놀라게 되는 곳이다.

역사적인 교회도 많다. 라 막달레나 교회(iglesia de la Magdalena)에서는 성스러운 성전의 고요함을 느낄 수 있고 광장 쪽으로 더 가면, 매력적인 고딕 무데하르 양식의 산 안드레스 교회(iglesia de San Andrés)가 보인다.

시에르베스 거리(calle Sierpes)는 시내 도시 투어에서 놓칠 수 없는 장소이다. 변화한 보행자 전용 도로로 세비아인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많은 가게, 바, 레스토랑을 즐기기에 이상적이다.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만남의 장소이자, 도심 상업지인 캄빠나 광장에 도착한다.



▲ 아르소비스발 궁전

세비아의 이색적인 공간인 알라메다 데 에르콜레스(Alameda de Hércules)를 산책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자. 역사적인 장소, 문화적 제안, 나이트 라이프가 환상적으로 어우러져 있다. 라이브 음악과 전자 음악 공간을 갖춘 바도 많다.

▼ 산 텔모 궁전



산따 크루즈 거리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이 거리는 좁은 횡단, 궁전 건물들의 활기차고 매력적인 색채가 특징이다. 꽃과 색채가 가득한 집의 정원을 보면 사랑에 빠지게 된다.

유대인 시대의 좁은 길거리를 경험해 보자. 이곳은 신선한 공기를 만들기 위해 좁은 골목으로 만들어져 있다. 작은 마을로 이루어진 반데라스 빠띠오 (patio de Banderas)라는 아름다운 정원은 알까사르 성벽 옆에 위치해 있다. 레알 알까사르의 성벽과 물의 좁은 통로(callejón del Agua)와 같은 상징적 명소를 통해서 광장을 지나갈 수 있다. 그늘지고 정겨운 빠띠오는 여름철 가장 더운 계절에 시원함과 신선함을 내뿜는 식물들로 가득하다.

인근에는 유명한 무리요 정원(jardines de Murillo)과 100주년 기념 궁전, 안달루시아 최고의 고귀한 건물 중 하나로 여겨지는 빨라토스 궁전(palacio-casa Pilatos)이 있다.

미겔 데 마냐라 궁전(palacio Miguel de Mañara)은 1623년 이후 귀족들의 거주지였던 또 다른 기념비적 건축물이다. 또, 13 세기에 세워진 교회 산따 마리아 라 블랑까(iglesia de Santa María la Blanca)는 두 개의 건물로 재구성되기는 했지만 원래의 동일한 구조는 그대로 보존 유지하고 있다. 14 세기에 처음으로 세워졌으며, 17 세기 세비야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 중 가장 대표적인 사원으로 바뀌게 되었다.



▲ 산따 크루즈 거리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된 유대인 사회(judería)에서 여행을 마쳐 보자. 세비아에서 세파르디아 과거의 흔적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박물관 전시회 외에 세비아의 유대인 통역 센터(Centro de Interpretación Judería de Sevilla)에서 여러 언어로 된 가이드 안내를 받는 것이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juderiadesevilla.es에 있다.

주변의 모든 매력을 느끼기 위해서는 히랄다의 독특한 전망을 갖춘 활기 넘치는 바와 선물집이 가득한 거리인 마테오스 가고(Mateos Gago)로 향해 보자.



벨라토스 궁전

라 마까레나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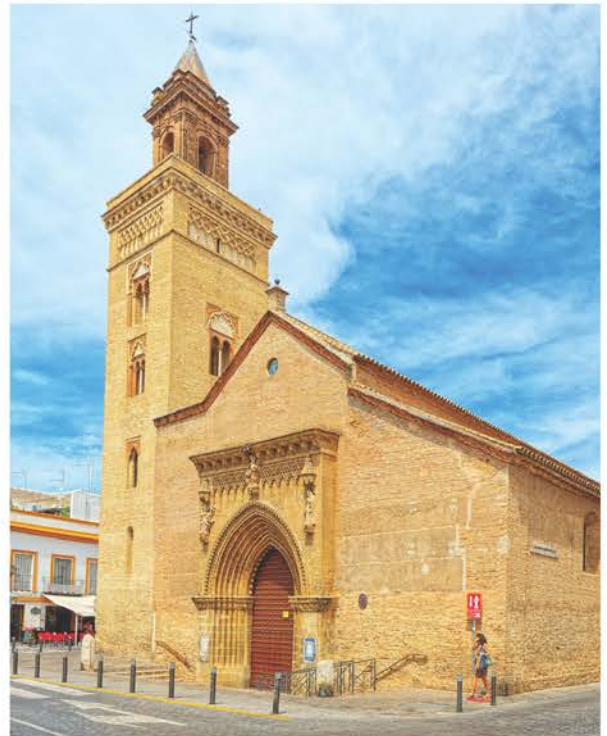
역사적인 중심지의 북쪽에 위치한 라 마까레나(La Macarena)는 세비아에서 가장 전통 있는 명소 중 하나다. 도시 고유의 건축양식과 전설과 역사적인 전통을 가진 도시이다.



▲ 라 마까레나 아치 대성당

세비아에서 가장 오래된 라 에스빠란사 마까레나의 형제가 있는 라 마까레나(La Macarena)의 아치와 성당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줄리어스 시저 시대부터 도시를 지켰던 코르도바의 성벽과 문이 있다.

라 마까레나 명소의 진정한 심장부라 불리는 산 루이스 거리(calle San Luis)에는 바, 가게 및 세비아의 요리법을 즐길 수 있는 매우 아늑한 레스토랑이 있다. 또한, 도시에서 가장 오래되고 고딕-무데하르 양식의 산타 마리아 교회(iglesia de Santa Marina)와 화재와 지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보존되고 있는 14세기 교회 중 하나인 산 마르코스 (San Marcos)의 건축물도 있다.



▲ 산 마르코스 교회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 중 가장 훌륭한 프랑스의 산 루이스 교회 (iglesia de San Luis)의 화려한 원형 지붕을 감상해 보자.

안달루시아 의회의 안띠구오 오스삐딸 데 라스 썩꼬 라가스(antiguo hospital de las Cinco Llagas)의 르네상스 외관과 정원은 방문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내부를 관람하려면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뜨리아나 거리

훌륭한 항해와 세비아의 역사적 전통을 갖춘 뜨리아나는 투우사와 예술가의 발상지이다. 구아 달끼비르 강 건너편에 위치한 이 명소는 오랜 전통으로 이어온 장인 정신과 플라멩코의 예술적 가치가 함께 반영된 고유의 특색을 지니고 있다.

세비아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잘 알려진 이사벨 2 세 다리(puente de Isabel II)는 국립 역사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이어진 산 하신포 거리(calle San Jacinto)에서 쇼핑을 하고, 활기가 넘치는 테라스에서 미식을 즐겨보자.

가장 상징적인 뜨리아나의 베티스 거리(calle Betis)는 강과 수평을 이루며 모든 뜨리아나의 풍미를 자아낸다. 이곳에서 7월 하순에 산타 아나의 "벨라 (Velá)"라는 축제가 열리는데, 이는 이 옷을 등불과 수호성인으로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활동의 축제이다. 13 세기에 세워진 산타 아나 교회(iglesia de Santa Ana)에서 일어난 순례 여행의 기원에서 유래한다고 전해져 오고 있다.

뜨리아나에는 고대 종교 유산인 산 호르헤의 유물이 보존된 종교 재판의 거리(callejón de la Inquisición)와 같은 건축물에서 경이로움을 발견하게 된다. 빠뜨로시니오 대성당(Basílica del Patrocinio)에서 세비아 부활절의 상징인 엘 까 초르로 (El Cachorro)의 이미지에 감탄하게 된다.



▲ 이사벨 2세 다리

도시의 도자기 전통을 보존하고 홍보하기 위해 고안된 박물관인 뜨리아나 도자기 박물관 (Centro Cerámica Triana)을 둘러보자. 이곳에서 흥미로운 역사 조각품과 오븐을 볼 수 있다. 안띠야노 감뽀스 거리와 알파레리아 거리를 산책하며 가게에 들러 멋진 기념품을 구입해 보는 것은 어떨까.

문화

세비야 도시는 다양한 문명과 예술적 스타일을 오랜 시간동안 고유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변화시켜 왔다. 박물관, 극장, 문화 중심지에서 독창성을 발견해보자.



▲ 미술박물관

박물관

작지만 매력적인 광장에 위치한 세비야의 역사적인 중심부에 있는 미술박물관 (Museo de Bellas Artes)을 방문해 보자. 예전에는 메르세드 칼사다(Merced Calzada) 수녀원이었던 이 박물관은 스페인 바로크 시대의 귀중한 보물들을 발견 할 수 있다.

이 박물관은 벽과 벽 사이 화려한 장식을 갖춘 금고와 천정, 16세기 17세기 스페인을 대표했던 수르바란(Zurbarán), 발데스 레알 (Valdés Leal) 그리고 무리요(Murillo)와 같은 위대한 예술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수녀원의 공간도 있다.

마리아 루이사 공원에는 대중 미술 박물관(Museo de Artes y Costumbres Populares)이 있다. 부와 민족적 다양함을 보여주기 위해 1972 년에 창시된 박물관의 전시 룸에는 과거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미술관 앞 아메리카 광장에는 고대 문명의 흔적이 인상적인 세비아 고고학 박물관 (Museo Arqueológico de Sevilla)이 여러분을 맞이한다. 여기에서 이탈리아, 안달루시아, 까람볼로에서 발견된 21개의 금 조각으로 이루어진 따르떼시오의 원산지인 로마 시대 유품들을 소장하고 있다.

세비아 엔까르나시온(Encarnación) 광장에는 독일 건축가 Jürgen Mayer가 설계한 세따스 데 세비아 (Setas de Sevilla)라는 메트로볼 파라솔에 또 한번 놀라게 된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목조 구조물로 세비아에서 로마시대의 가장 중요한 장소였던 안띠꾸아리움 (Antiquarium), 재래시장, 각종 행사가 열리는 스퀘어 광장, 전체 공간에 그늘을 만들어 주는 6개의 파라솔 등으로 총 4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안띠꾸아리움

산책로를 거닐며 도시의 환상적인 전망을 감상 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자.

<http://www.museosdeandalucia.es/cultura/museos/>

<http://www.juntadeandalucia.es/cultura/museos/>

<https://setasdesevilla.com/>

▼ 메트로볼 파라솔





▲ 비에날 데 플라멩코



▲ 까이사포룸

예술 센터

세비야 문화의 명예 전당에는 산타 클라라 문화 센터(Centro Cultural Santa Clara)가 있다. 산타 클라라의 아름다운 수녀원에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예술과 문화의 양상불을 이루며 비에날 데 플라멩코(Bienal de Flamenco)가 개최되는 주요 장소이기도 하다.

건축에 관심이 있다면 까이사포룸(CaixaForum) 아트센터를 둘러보자. 모든 관객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문화와 예술 및 교육 활동을 제공하는 현대적인 디자인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다.

세비야의 예술가들이 가족처럼 함께 모여 예술 활동을 했던 까사 무리요(Casa Murillo)를 방문하여 인생 경력과 대표 작품에 대해 알아보자. 화가의 계단을 따라 17세기 도시로 떠나는 가이드 투어를 즐기고 싶다면 이곳이 가장 이상적인 출발점이다.



▲ 까이사포룸

라 까르뚜하(La Cartuja) 수도원에서는 20 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스페인의 예술 동향에 대한 작품이 있는 안달루시아 현대 미술 센터(Centro Andaluz de Arte Contemporáneo)를 둘러볼 수 있다. 중요한 고고학 유산이 있는 라 까르뚜하(La Cartuja)에 대해 깊이 있게 알게 될 것이다.

추가 정보 :

www.caixaforum.es/sevilla

www.murilloysevilla.org

www.caac.es

극장과 문화적인 장소

세비아는 공연 예술을 비롯하여 문화 활동 공간이 많다. 남유럽 오페라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상징하는 서정적인 음악 대극장인 마에스트란사(Maestranza)이다.

3월 한 달 동안 로페 데 베가 극장 (Teatro Lope de Vega)에서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 플라멩코 공연, 재즈 연주회가 열리는 유명한 전통 음악 축제(Festival de Música Antigua)를 즐겨보자.

규모면에서 가장 웅장한 곳은 세비아의 중심부에 있는 퀸테로 극장 (Quintero Theatre)이다. 컨퍼런스, 문화의 날, 전시회가 열리며 다양한 행사를 제공하는 문화 복합 공간이다.

또 다른 곳은 라 펀디시온(La Fundición)으로 모든 관중에게 프로그램이 열려있다.

라 까르뚜하 수도원



세비야 느껴보기

역사의 중심인 바, 테라스, 레스토랑과 도시의 곳곳에서 선사하는 타파스를 통해 안달루시아의 주도인 세비야를 느껴 보자. 무한한 다채로움이 있다.

▶ 가스빠초



전통 요리

세비야는 스페인 요리의 절정인 타파스를 맛보기 위한 최고의 도시 중 하나이다. 그리고 세비야인들의 환영과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를 방문해 보는 것이다. 수십 명이 프리아나 및 라 마까레나의 역사적인 중심지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그들은 아주 전형적인 차가운 육류(이베리아 햄, 돼지고기), “파파스 알리냐스”(양념 된 감자), 생선 튀김(frituras de pescado) 등을 즐긴다. 가장 더운 계절에 세비야를 방문했다면, 가스빠초(gazpacho)를 주문하는 것을 잊지 말자. 여름철 시원한 건강 수프다.

몬타디토스(montaditos)는 속이 가득 찬 작은 토스트 샌드위치로 인기 있는 메뉴이다. 세비야의 모든 바에는 그들만의 독창적인 메뉴가 있다.

살코기, 새우, 전형적인 세라니토, 튀긴 피망과 햄 중에서 당신은 선택하기 힘들어 질수도 있다.

와이너리와 바에서 세비야의 정통적인 맛을 느낄 수 있는 바르리카 와인이 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애피타이저에 이상적인 피노(fino)와 만사니아(manzanilla)이다. 이곳은 오랜 전통을 지닌 바가 많으며 많은 사람들이 찾는 역사의 중심지이다. *엘 끼호떼*의 저자인 미겔 데 세르반테스가 자주 찾았던 곳이다.

선구적인 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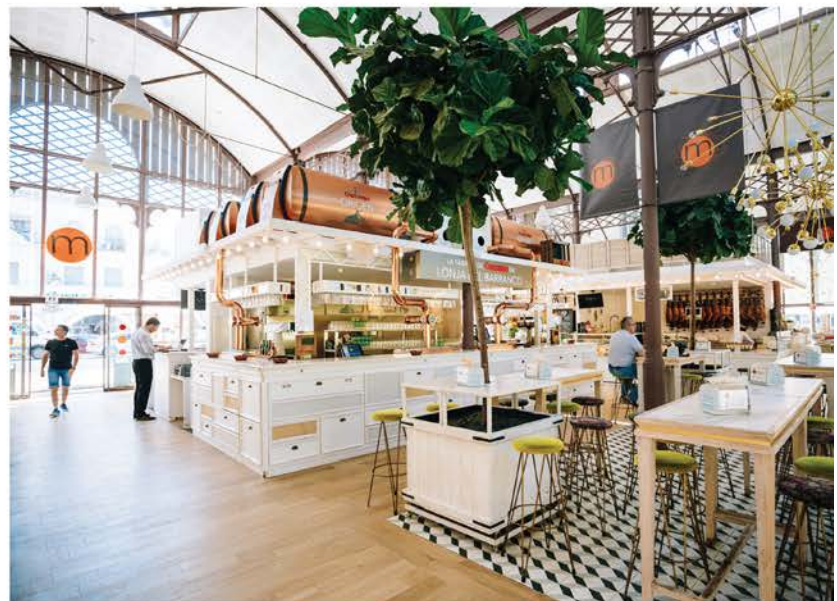
고급 요리도 안달루시아 주도에 자리 잡고 있다. 정갈한 데코레이션과 놀라운 맛을 지닌 아방가르드 레스토랑의 혁신적인 요리법을 경험해보자.



미슐랭 스타가 운영하는 아반탈(Abantal) 레스토랑이 좋은 예이다.

시장에서의 식사는 세비아인들 사이에서 매우 유명하다. 트리아나 시장(mercado de Triana)은 도시의 중심을 연결하는 다리에 있으며, 신선한 굴부터 맛있는 초밥까지 다양한 메뉴를 갖추고 있다. 라 마에스뜨란사 광장(Plaza de La Maestranza) 근처 바르란꼬 시장(mercado-lonja del Barranco)에는 수산 시장도 있다. 전통요리와 아방가르드 요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바가 많은 현대적인 시장이다.

트리아나의 다리를 건너 아레날 시장(mercado del Arenal)의 야외 레스토랑으로 가보자. 그 곳에는 안달루시아에서 생산된 식자재를 기반으로 한 전통 음식부터 밭에서 금방 따온 야채 요리까지 이 지역에서 나온 로컬 음식은 모두 다 접할 수 있다.



▲바르란꼬 시장

원한다면 와인 테스트 교육도 받을 수도 있다.

추가 정보 :

www.mercadodetrianasevilla.com

www.mercadolonjadelbarranco.es

사계절의 세비야

세비야는 언제가도 상관없다. 도시에서 타파스, 플라멩코 라이브, 구아달끼비르 서핑, 부활절 축제의 매력까지 사계절을 모두 다 경험할 수 있다.



▲ 산따 크루즈 거리

여름

여름철 태양과 열기의 세비야에서 역사 전통 거리를 따라 저녁 산책을 즐기다가 수많은 테라스 중 한 곳을 들러 시원한 맥주와 가스파초를 즐겨 보는 건 어떨까. 저녁에는 레알 알까사르 데 세비야(Real Alcázar de Sevilla)의 별 아래에서 라이브 음악을 감상해보자.

영화 매니아인 경우, 마리아 루이사 정원에서 여름 영화 프로그램(cine de verano del parque María Luisa)을 이용해보는 것도 추천한다.

태양이 내리 쬐는 정오에 자동차로 1 시간가량 이동해서 우엘바 또는 카디스의 해변(playas de Huelva o Cádiz)으로 간다면, 여러분은 대서양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다.

가을

10 월 말에는 댄스의 달(Mes de la Danza)로 극장, 거리, 이웃들과 함께 주최하는 행사를 통해 도시를 한층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일정을 확인하고 www.mesdedanza.es를 통해 티켓을 예약하자.

세비야에는 2년 마다 열리는 독특한 이벤트인 비에날 데 플라멩코(Bienal de Flamenco)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유네스코가 인류의 무형 유산으로 선언한 스페인 예술과 관련된 가장 큰 국제 행사이다.

9월에 세비야 도시 여러 곳곳에서 열린다. 레알 알까사르의 정원, 라 마에스뜨란사 극장 무대, 트리아나 또는 프랑스의 산 루이스 교회 정원과 같이 특별한 장소에서 열리는 플라멩코 공연

을 직접 관람해 보면 콘테스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층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www.labienal.com을 통해 알아보자.

겨울

12 월 중순, 세비아의 공연 예술제(Festival de Artes Escénicas de Sevilla)에 참석해보자. 여러 지역에서 배포한 음악, 공연, 무용 행사를 하나의 문화 축제로 전환시킨다.

www.sevillafest.com에서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

운동을 좋아한다면, 카누를 타고 세비아 사람들과 함께 스포츠에 참여해보자. 구아달기비르 강에는 물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토레 델 오로 (Torre del Oro), 라 마에스트란사 (La Maestranza) 또는 라 카르뚜하 수도원 (Monasterio de La Cartuja)과 같은 명소를 감상할 수 있는 **카약 투어**도 영어로 제공된다.

봄

세비아에서의 시간은 화려함과 열정, 신비의 대명사이다. **부활절 축제(Semana Santa)**를 강렬하게 지낸다. 엄숙한 음악의 리듬과 풍성한 종교적 이미지로 장식된 거리를 체험해보자. 당신은 감사와 헌신의 표시로 아카펠라를 불러 주는 플라멩코의 노래 사에따스를 들을 수 있다. 가장 기다려지는 행렬 중 하나로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의 밤, 예수님의 열정을 기념하는 마드루가(Madrugá)가 있다.

방문하기 좋은 날짜는 세비아의 **4월 축제(Feria de Abril)** 기간이다.



▲ 4월의 축제

박람회장의 250,000 개의 전구가 켜지면서 알룸브라오(alumbrao) 밤에 시작되는 축제로 춤을 추고 노래하며 생선 튀김도 부스에서 맛볼 수 있다. 화려한 플라멩코 의상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순수 커팅한 맛있는 이베리아 (Iberian) 햄을 맛보자. 당신은 세비아 사람들의 전통 춤도 따라 배워볼 수 있다. 행사는 구아달기비르 강을 따라 펼쳐지는 멋진 불꽃놀이로 멋지게 마무리된다.

스페인 부활절 축제와 세비아 4 월 축제는 유네스코에 의해 국제 관광의 축제로 선언되었다.



어린이들을 위한 세비야

어린 아이들과 함께 가족이 극장에 가거나, 박물관을 방문해 보자. 구아달끼비르 강을 산책하거나, 자연여행을 떠나거나 테마파크를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

매직 섬(Isla Mágica)의 놀이기구는 세비야의 어린이들을 위한 주요 명소 중의 하나이다. 모든 놀이기구의 크기는 다양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롤러코스터가 32 미터 높이라는 점이다.

세비야 수족관(Acuario de Sevilla)은 아이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장소이다. 최대 9m 깊이의 수조와 거북이를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포유류인 상어와 다른 많은 종류의 물고기와 같은 거대한 수중생물들을 볼 수 있다.

바다에서 우주로 가보자. 전시회, 과학 세계와 관련된 활동 및 필수 플라네타륨이 있는 박물관 까사 데 라 씨엔시아(Casa de la Ciencia)를 방문해보자.

추가 정보:

www.islamagica.es

www.acuariosevilla.es

www.casadelaciencia.csic.es

신비의 도시

시간적 여유가 있고 도시의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재미있는 장소를 둘러보고 싶다면, 다음 몇 가지 선택 사항을 추천한다.

공원과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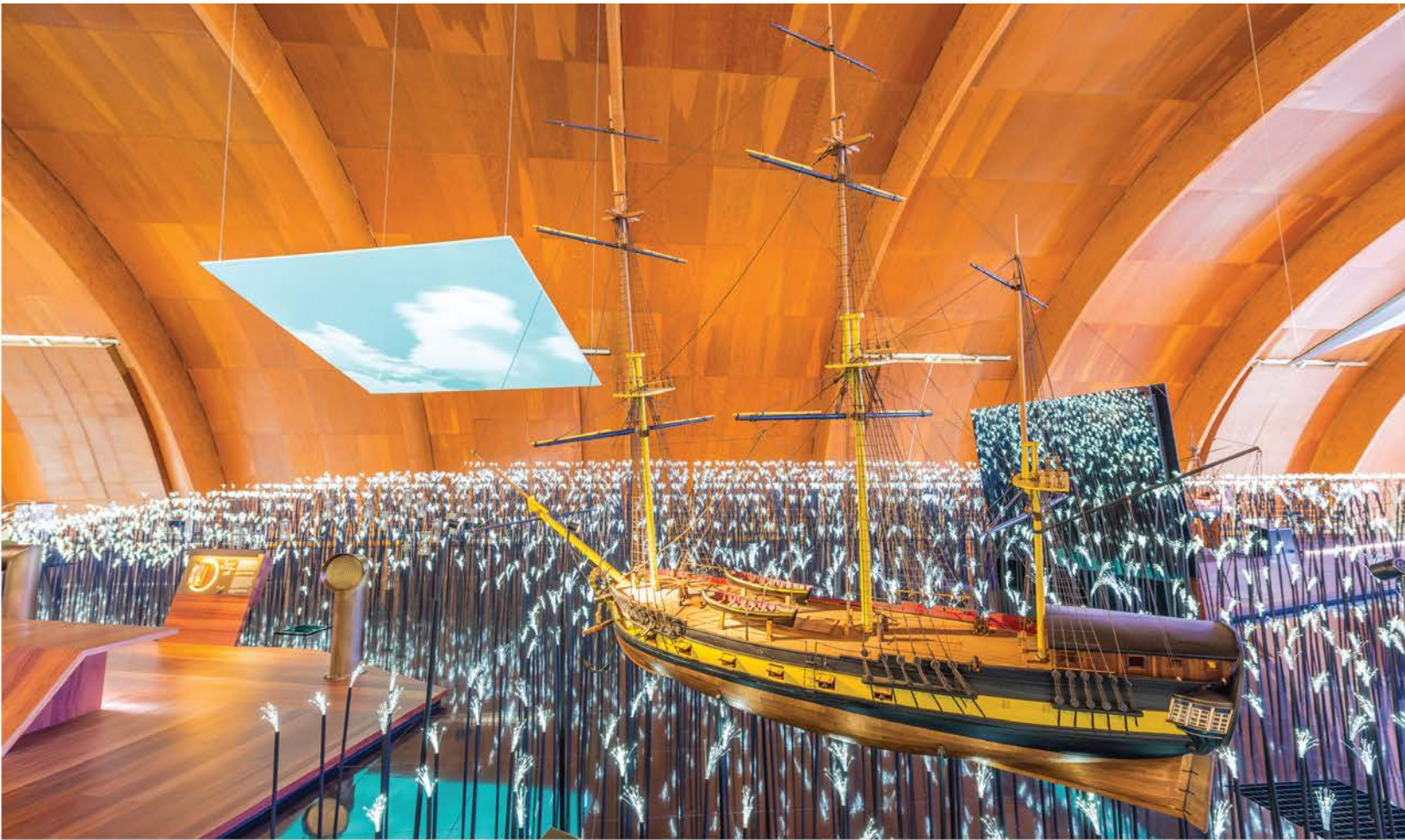
부아이라 정원(jardines de la Buhaira)을 방문하면 아랍 시대의 도시로 이동한다. 그 곳에서 올리브 나무, 아자수, 포도원, 과일 나무 사이로 걸을 수 있다. 옛 궁전의 흔적도 있다. 오늘날, 여름에 연극과 서정적 공연을 개최하는 시민들의 장소이기도 하다.

산타 크루즈 (Santa Cruz) 근교의 매력적인 광장 도냐 엘비라 광장 (plaza de Doña Elvira)의 오렌지 나무 그늘 아래 타일로 꾸며진 벤치에서 휴식을 취해 보는 건 어떨까. 생기 넘치는 테라스에서 음료를 마시고 중앙 분수를 경험해보자.

비밀 박물관

세비야의 많은 문화유산 중 박물관은 훌륭하다. 거의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산 호르헤 박물관 (Museo del Castillo de San Jorge)은 매우 흥미롭다. 조각가 에두아르도 칠리다(Eduardo Chillida)는 기념 관저에 앉아서 심판 재판소의 종교적, 사회적 및 문화적 억압을 문서화하는데 전념했다고 한다.

라 까르뚜하 섬(Isla de la Cartujo)에서 파빌리온의 항해를 직접 확인해보자. 유적지인 구아달끼비르 (Guadalquivir) 유역에 자리 잡고 있으며, 세비야가 미국 탐험과 정복의 역사의 중심이었던 항구였음을 알려준다.



▲ 파빌리온의 항해

그들의 임시 전시회 및 일정을
www.pabellondelanavegaci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천할만한 다른 명소는 무데하르 박물관
 (Mudéjar Museum)으로 예술을 창안한 히스패
 닉계의 혼합을 교육적인 방식으로 전시하고
 있는 곳이다.

세비야의 루프탑

세비아에는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전망대
 가 있다. 안달루시아에서 180미터 높이를 가진
 초고층 건물 세비아 탑(Torre Sevilla)을 방문해
 보자. 구아달끼비르 강 (Guadalquivir)에 위치해
 훌륭한 경관을 자랑하는 쉰들러 타워(Schindler
 Tower)를 방문해 보는 것도 추천한다.

▼ 세비아 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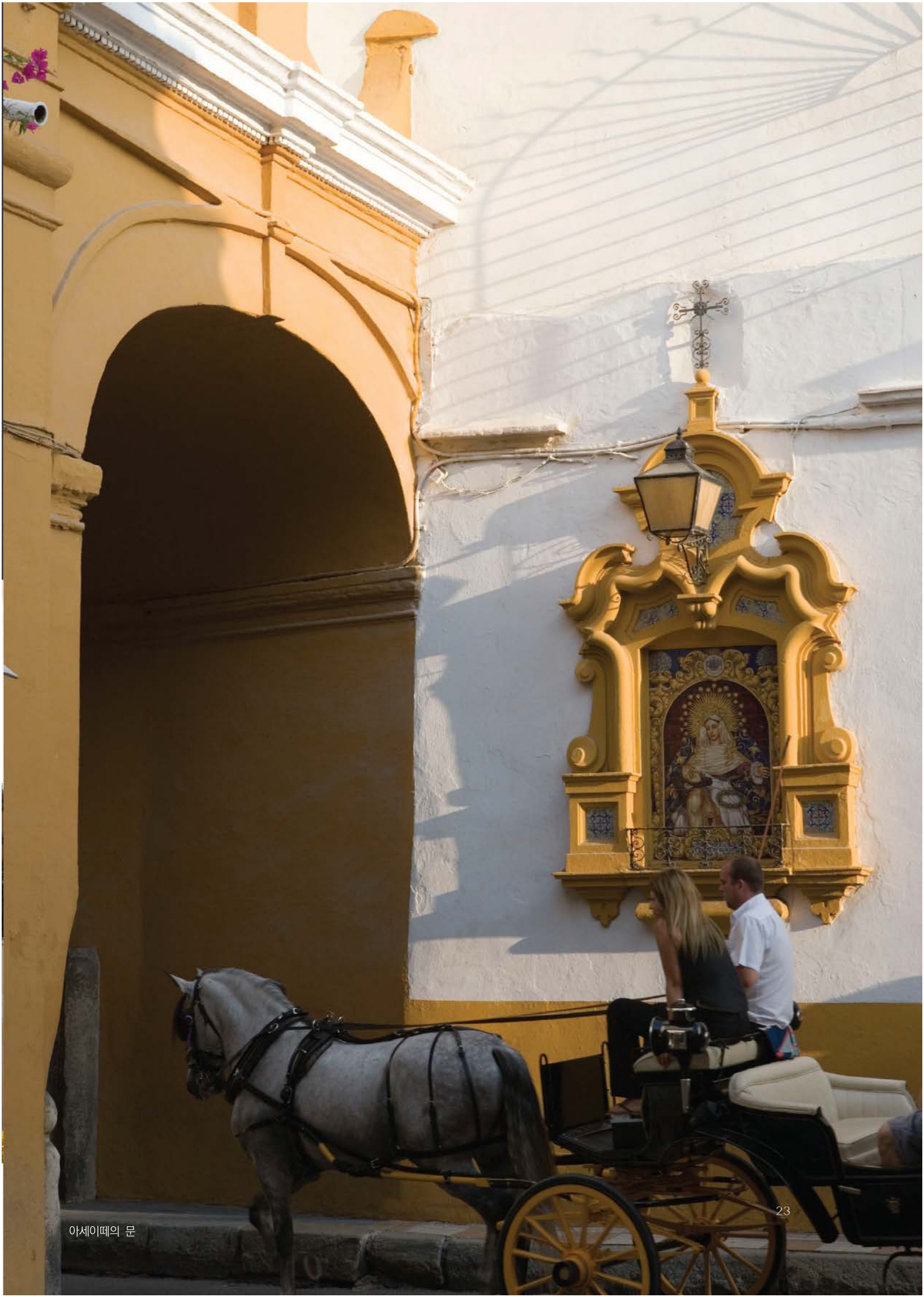
오래된 페르디고네스 탑(Torre de los Perdigones)은 세비아의 몇 안 되는 산업 기념물 중 하나이다. 그 안에는 안달루시아 도시의 라이브 이미지를 독특한 방식으로 관람할 수 있는 전망대와 전실이 있다.

대성당의 루프탑은 세비아 도시의 독특한 전경을 다른 높이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추천 코스다. 대성당 지붕 위를 걸으며, 복도를 통과하고 나선형 계단을 오르는 이 투어는 인터넷을 통해 가이드 투어를 사전 예약하거나 매표소에서 직접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히랄다 탑이 보이는 테라스

세비아의 가장 좋은 전망을 가진 테라스 중 한 곳인 이곳에서 풍경을 감상해보자. 프리야나의 유서 깊은 중심지와 그 옆에는 세알리아 하늘을 배경으로 최고의 안달루시아 요리, 쇼, 라이브 음악을 제공하는 수많은 레스토랑의 테라스가 있다. 도시의 잊을 수 없는 탁 트인 전망과 멋진 과달끼비르에서 일몰을 이곳에서 즐겨 보자.





세비야의 밤

나이트 라이프를 즐겨 보고 싶다면, 세비아는 밤의 여가를 위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록음악 바, 전자 음악, 정교한 테라스, 재즈 클럽 ... 각 명소마다 분위기가 있다. 세비아 수도의 매혹적인 밤을 경험해보자.



바와 테라스

세비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역은 구 시가지이다. 호텔 테라스에는 칵테일과 정교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엘 살바도르 광장(plaza del Salvador)**을 방문하여 거리를 즐겨보자.

색다른 것을 좋아한다면, **헤리클레스의 가로수**

길(Alameda de Hércules)로 가보자. 모든 도시 주민들이 광장에 테라스를 가지고 있어서 옥외에서 술을 마시기에 환상적인 장소이다. 라이브 음악을 좋아한다면 취향에 맞는 콘서트에서 멋진 저녁을 보내보자.

엘 아레날(El Arena)은 활기 넘치는 밤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구역으로 칵테일 라운지와 클럽들이 즐비해 있다. 토로스 광장 주변에는 건물 옥상에 있는 자신들만의 테라스에서 아름다운 도시의 경치를 볼 수 있다. 아르페 거리(calle Arfe)는 춤을 추며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다.

강을 건너면 트리아나에 도착한다.

이곳은 토레 델 오로와 같은 아름다운 명소를 비롯해 독특한 전망을 자랑하는 구아달끼비르 옆에 있는 베티스 거리(calle Betis)와 테라스가 있다. 최고의 전문가가 진행하는 플라멩코 춤의 매력에 꼭 빠져보자.

뉴욕 항구(Muelle de Nueva York)에 간다면, 특히 여름철에는 밤 강가에서 산책하고 해먹에 누워 맛있는 과일 칵테일을 즐길 수 있다.

▼ 베티스 거리





도시의 거리와 산책

세비야를 여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비야의 상징적인 곳을 여행하는 것이다.

로마 루트(La ruta romana)는 산타 크루즈와 라 알팔파의 고대 문명의 흔적이 그대로 있다. 전쟁의 신 화성 사원에 속한 헤라클레스와 세사르의 기둥(columnas de Hércules y César)을 보자. 연속적인 재건축 후에 수 세기 동안 도시의 식수를 공급하는 400 개의 아치가 있는 로마 수로의 까르모나 수로(caños de Carmona)를 보고 감탄할 것이다. 수 킬로미터 뻗어있는 거대한 엔지니어링 작업 중에서 현재는 루이스 몬또또의 거리에 있는 세계의 작은 통로만이 남아 있다.

같은 세기에 건설한 성벽인 훌리오 세사르 시대의 수비형 건축물도 가까이서 볼 수 있다.

세르반테스 루트(ruta Cervantes)는 미겔 데 세르반테스의 문학적 자취를 발견 할 수 있다. 구스타보 아돌포 베커와 '27 세대' 시인들이 동시대 다른 작가들에게 예술적 영감을 불어 넣은 곳을 발견할 수 있다.

수천 개의 신비스러운 이야기가 세비야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아름다운 수소나와 죽음의 거리에 있는 두개골 모양의 타일과 같은 전설의 루트를 따라 걸어보자. 세비야 대성당의 오렌지 나무 안뜰에 왜 악어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 산타 마리아 라 블랑카 교회

이스빌리아라고 하는 이슬람 도시에서 5세기 이상동안 지켜온 세비아의 아랍 전통을 경험해 보자. 이슬람 문화유산 루트를 통해 이슬람 사원, 궁전, 과거 아랍식 목욕탕을 방문해 보자. 당신만의 여행을 디자인하고 그 시간을 기억해 보자.

세비아 근교 방문지역

여유가 있다면, 까르모나(Carmona)와 같이 기념비적 명소이자 역사적인 도시인 안달루시아 주도 근처 여러 목적지를 꼭 방문해 보도록 하자. 훌륭한 전통과 미식을 선사할 것이다.

세비아와 코르도바의 중간 지점 세실리 시골에 위치한 아름다운 도시 에시하(Écija)는 헤닐 강 유역에 있다. 이 소도시는 스페인 말의 번식지로써 명성을 얻었고 지금까지도 말 타기, 마차, 승마교육 등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도시이다.

오수나(Osuna)의 아름다움에 감탄할 것이다. 밀레니엄 전통 중에서도 이 마을은 올리브 나무와 역사, 예술, 문화적으로 뛰어난 유산을 자랑하며 장엄한 풍광을 자랑한다. 이곳은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 중 하나인 산 페드로 거리가 있는데 이 예술적 감각의 거리에는 궁전과 명문가가 들어서 있다.



까르모나



▲ 이태리 고고학 결합, 산띠뽀세

세비아는 바다와 산에 활짝 개방되어 있어 당신에게 뛰어난 천혜의 자연 환경을 선사할 것이다.

마르체나(Marchena)는 산 후안 바우띠스따와 아르코 데 로사의 교회가 있는 안달루시아 자치 주의 중요 도시이다. 부활절 축제와 안달루시안 플라멩코 등 고유의 전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보존 가치가 높은 도시이다.

이 지역의 과거 로마 시대로 여행하기를 원한다면, 산띠뽀세(Santiponce)의 이태리 고고학 사이트를 방문하자. 원형 경기장과 아드리아노 지역을 걸어보고 아름다운 모자이크와 조각품도 감상해보자.

아스날까사르에 있는 구아디아마르의 녹색 통로(corredor verde del Guadiamar)를 통해 로시에라 루트도 참여해 보자.

까르리올라 (작은 이동 주택)를 통해 이 장소를 여행하는 것은 결코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이다.

아바호 목장(dehesa de Abajo)에서 조류 관찰을 하거나 미니마 섬(isla Mínima)과 마요르 섬(isla Mayor)의 논을 옮길 수도 있다. 유럽에서 가장 큰 쌀 생산 지역으로, 독특한 경관을 자랑한다.

지질학에 관심이 있다면, 등반하기에 이상적인 카르스트 지형의 세로 데 이에르로(Cerro del Hierro)를 방문해보자.

찾아오는 길

아베(스페인 고속철도)

아베(AVE) 고속 열차는 세비야와 마드리드 사이에 약 왕복 20개의 구간을 제공한다. 또한 다른 안달루시아 도시와 스페인의 다른 렌페(RENFE) 및 아베(AVE) 네트워크와도 연결된다. 산따 후스따 역은 구 시가지와 매우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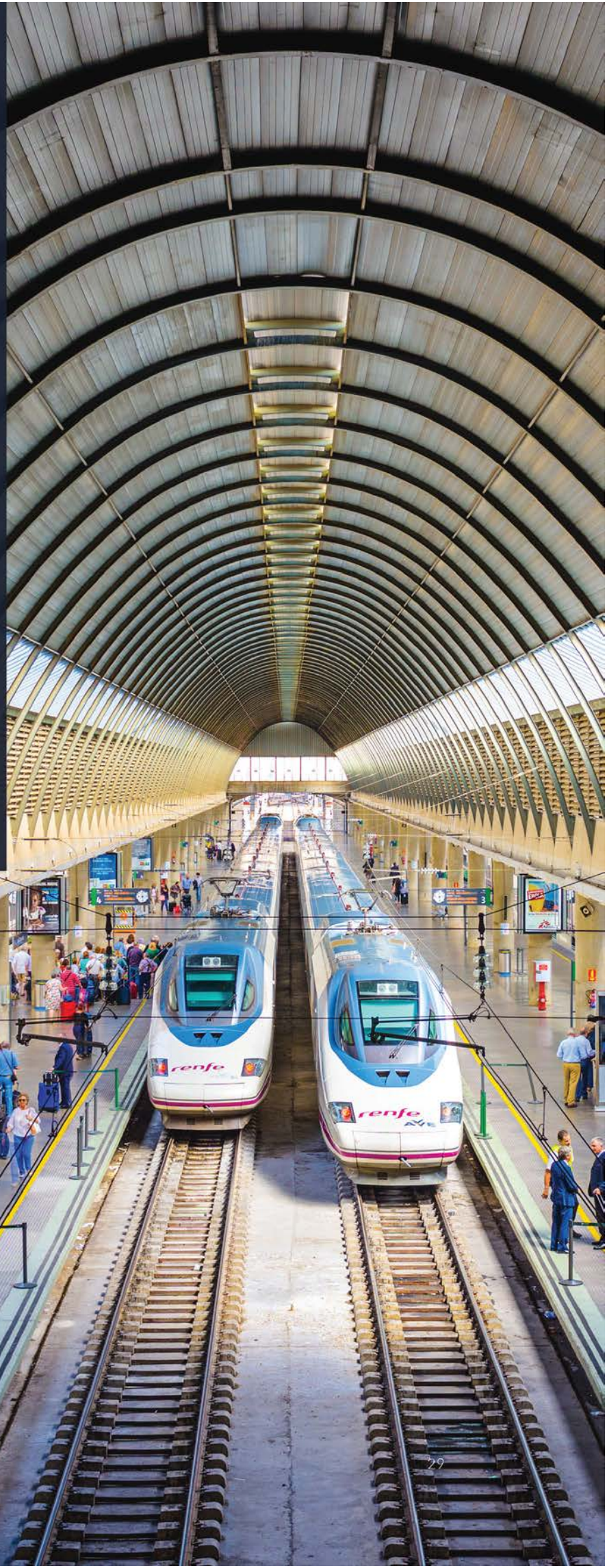
공항

도심에서 북쪽으로 10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런던, 파리, 로마와 같은 유럽 도시와 수많은 연결 고리를 가지고 있다.

자동차

세비야는 남쪽 고속도로 또는 A-4와 마드리드 및 기타 고속도로, 안달루시아 및 스페인의 다른 도시와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다.

▼ 산따 후스따 역



세비아 안에서 이동하기

지하철

세비아 지하철에는 수도권 (알하라페)과 센터 (뿌에르타 헤레스)를 연결하는 노선이 있다.

추가 정보

www.metro-sevilla.es

버스

정각 시간만 피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편도 티켓은 버스에서 구입할 수 있다. 관광 카드는 유효 기간인 1 ~ 3 일 동안 원하는 만큼의 여행을 할 수 있다.

가까운 거리

가장 가까운 목적지로 가려면 중간 거리의 기차가 있다. 세비아 근처의 도시와 연결되는 두 개의 교외 기차 노선이 있다.

자전거

맑은 날씨, 비교적 짧은 동선 거리 및 평평한 지형적 특성 때문에 안달루시아 수도는 자전거 타기에 알맞다. 트래픽으로부터 보호되는 광범위한 자전거 전용 거리를 갖추고 있다. 단기 회수권을 제공하는 렌탈 서비스 (SEVICI)도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sevici.es 를 참고하자.



▲ 세비아

기타

세비아는 시간 제한이나 강제성 없이 분당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 오토바이 서비스를 출시했다. 교통 체증을 피하고, 자연 환경을 보존하며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추가 정보는 www.moving.com 를 참고하자.

관광버스를 통해 도시를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다.

택시는 흰색에 노란색 대각선 줄무늬가 있으므로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추가 정보

www.visitasevilla.es

www.spain.info



 @spain

 @spain

 Spain.info

 /spain